

월간 제 42 호

2005년 9월 10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 진리는 나의 빛

### ■ 이달의 말씀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편집인 겸 발행인 · 유은상 / 발행처 · 관악구 신림2동 103-170 대학촌교회내 / 전화 · 888-9111

## 2005 서울대 전도집회 'Fall in Love in Fall' 9월 27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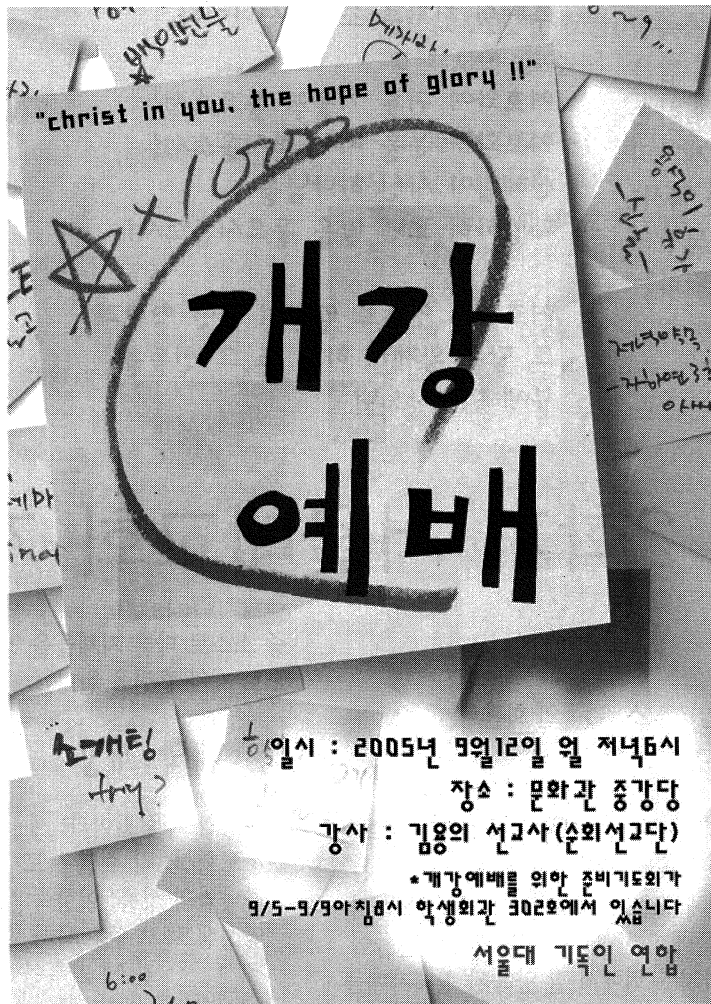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친구들을 위해 전도집회가 열린다.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모임은 기독교인 모임들에서 전도를 위해 기도해 왔던 친구들을 위한 관계전도와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등의 공연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의 전달, ‘꿈이 있는 교회’의 하정환 목사님의 설교, 결신의 시간, 간단한 음식을 나누면서 갖는 친교의 시간등으로 이어진다.

서울대안의 모든 선교단체 단대 기독교 학생들 뿐아니라 대학원생, 교수님들 교직원 그리고 선배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 준비에 임하고 있다.

1000여명정도의 학우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기도의 지원과 재정의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2005년 2학기 개강 예배가 드려진다. 기독교수들 기독교학생들 기독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주최로 9월 12일(월) 저녁 6시부터 문화관 중강당에서 드릴 예배에서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소속)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예배후에는 저녁을 함께 하면서 갖는 친교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 까지 아침 8시 학생회관 302호실에서 계속되어 왔다.

### 서울대 교회 2학기 수요일 열린 예배 안내

대학 밖의 교회인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열린예배로 드리는 수요일 예배의 강사와 일정이 확정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26동 대형강의실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다.

9월 7일 : 부흥한국 초청 찬양과 경배 집회

- 9월14일 : 김원호 장로('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저자, 예수전도단 DTS 교장)
- 9월21일 : 김혜자 권사 ('벨런트,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저자)
- 9월28일 : 김진홍 목사 (두레교회 목사)
- 10월5일 : Richard MacIvaine 목사 (미국 Washington 주 'Divine Healing Room' 원장)
- 10월12일 : 새생명 전도 축제 / 박홍수 목사

- 10월19일 : 이주성 목사(은혜교회 목사)
- 10월26일 : 장갑덕 목사(카이스트 교회 목사)
- 11월2일 : 황성주 목사(이름생식, 꿈꾸는 교회 목사)
- 11월9일 : 서승동 목사 (묵상, 예수전도단 강사)
- 11월16일 : 정충시 회장(오미야 아시아 대표, 세계 선교 방송 선교회 부회장)

예배문의 02 876 0654 (서울대 기독교센터) 홈페이지 [http:// www.snuchurch.net](http://www.snuchurch.net)

### 사설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경제적 위기, 우와 적의 기본적 개념 설정의 잘못에서 오는 정치의 위기, 교육자와 교육정책의 위기 등을 염려하는 소리를 도처에서 듣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중요 가치들이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혼율의 급증, 거의 세계 최고수준의 저 출산 현상 등 가정의 약화, 사회전반에 만연한 권위의 해체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많은 사회운동들이 정의와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집단적 이기주의와 미움의 시대정신에 이끌리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위기와 기본 가치의 해체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운동은 남성에 대한 투쟁이 그 주된 흐름이 되고 있고, 일부 교사 운동에서는 학부모나 교육당국과의 투쟁에 더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고, 노동 운동에서도 많은 경우 노사가 피차 서로를 섬겨야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에서 너무 빛나가고 있다. 급격한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낡은 것 소멸되어 마땅한 것들의 해체를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낡은 것의 청산을 구실삼아 이루어지는 이른바 혁신 속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연결된 가장 본질 적인 것들이 심하게 훼손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 교회적 가치의 훼손도 염려 되는 때가 있다.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전복하기를 원하는 일부 사람들은 국민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미움과 이기주의적 정신을 100% 활용하려한다는 점에도 유의

##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한다

할 필요가 있다. 10월 혁명과정에서 레닌이 그들의 본부로 삼은 무용가 크레진스카야의 궁 발코니에서 민중들에게 호소한 “빼앗긴 것들을 다시 빼앗으라”는 한 마디의 선동이 약탈과 살인의 눈먼 전투적 민중을 만들어 냈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토지 분배의 소문이 러시아 군의 병사들로 하여금 토지 분배를 받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탈영병을 속출케 해서 러시아 군의 해체를 촉진한 것을 역사에서 읽고 있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지성들이 있고, 1300만의 그

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마치 가위눌린 사람들처럼 시대를 탄식하는 관객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17년 그 10월 혁명의 때 페트로그라드에는 혁명을 반대했던 수만 명의 예비역 군의 장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어나서 이 혁명에 맞서지 못하고 극히 수동적 관객의 역할을 하였다. 물론 혁명 후 살육과 청산의 대상으로, 박해의 대상으로 거의 예외 없이 희생 되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역사적 교훈이라 여겨진다.

과거를 지향하는 어떤 시도나, 미움과 이기주의의 정신에 바탕을 둔 운동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활로가 열릴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된 미래에 대한 환상이, 사랑과 피차서로 섬김의 정신이, 권리 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우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한다.

이 시대를 속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기독교인들 속에서 많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준비들이 학창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서울대학교회 여름 수련회

일정 : 6월 24일-26일/ 장소 : 강화 반석 기도원

참여인원 : 110명 가량

서울대학교회 가족들이 함께한 이박 삼일의 수련회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족됨을 경험하였고,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성령의 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세 번의 강의(홍종인 교수: 제자의 삶/ 김주연 사모: 하나님의 나라/ 박홍수 목사: 구약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해안 갯벌에서의 씨름과 놀이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 이 달의 기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훼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나이다.

히스기아 왕의 기도  
열왕기하 19 15-19

## 2005 2학기 서울대학교회 개설 강좌

### 제자 훈련 학교

일정: 9월 10일-12월3일(12주간 매주 토요일)/ 장소: 기독교인 회관/

담당자: 홍종인교수, 김난주 사모

서울대학교가 제자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의 제자화가 필요하다. 제자화를 위해서는 지체들 중에서 헌신된 이들을 재생산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회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 지체들에 의한 제자 양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양육된 형제자매들

중 스스로 다른 지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

### 성경대학 개강

성경의 맥을 잡아라: 제원호 교수/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24동 102호  
사도행전: 김 주연 사모/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8시 / 장소: 25동  
하나님의 성품: 이항숙 간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8시/ 장소: 기독교인 회관  
영성캠프: 박홍수 목사, 제원호 교수, 원안드레 목사/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장소: 기독교인 회관

### 선교단체 탐방 Sunywam

안녕하세요~ Youth With A Mission! YWAM 예수전도단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모임, 부흥, 캠퍼스 워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예배와 찬양들은 모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전도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다.

#### < 캠퍼스 모임 & 캠퍼스 사역들 >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28동 103호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양육 - 1:1로 목자와 함께 성경공부하는 시간!

묵상 - 매일아침 8시 24동 110호에 함께 묵상.

중보기도 - 월, 화, 목 점심시간 12:00에 학관 302호에서 모여서 중보기도해요.

#### < Campus Worship >

캠퍼스 워십은 매주 목요일 저녁 6:30에 7호선 중곡역에 있는 한국중앙교회에서 수도권지역의 YWAM 대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드리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 < 여름 국내 단기선교 >

지난 학기에는 36명의 학생이 여주, 목포, 경주, 강

릉 네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 2005년 2학기 계획으로는...

YWAM 서울 대학 사역은 수도권 지역에 60개의 학교가 연합하여 활동합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외에 비전이 같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전공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DTS >

UDTS는 대학생들이 8개월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전도여행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송지은(응화02) 011-9118-5158 /

이형일(동자01) 017-279-1578

(학관 302호, ywamsnu.cyworld.com)



### SFC

저희 단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원리를 추구하며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건설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자체적으로 큰모임과 작은모임, 아침QT모임과 점심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 목요일 6시반에 큰모임을 통해 멤버 모두가 모이는 장을 마련하고, 작은모임은 각 소그룹별로 성경공부와 함께 지체들과의 따뜻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어느 누구라도 반갑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동아리방은 학생회관 312-2호입니다.

대표:김종광(011-9255-6108)

### 새책소개

“그러나 그 시간은 잃어버린것이 아니었다”

알브레히트 쉰헤르 씬/유은상 옮김

히틀러치하에서는 본회퍼의 제자요 친구로

고백교회에 참여했고, 2차대전후에는 동독에 남아 교회를 지킨 동독교회 지도자인물의 자서전

곧 나올예정/도서출판 대학촌

# 2005 여름 단기 선교 보고

## Thailand 태국

일정 : 6월26일-7월6일/ 참여인원: 10명의 형제 자매들

(이들 중 4명이 외국인 지체)

주된 사역 :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 Karsetsart Univeristy, Lachamonkon University, Tamassart University, Phranakhon University 4개의 캠퍼스)

태국 단기 선교는 강신후 교수님이 지난 10여년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역인데, 이번 선교여행은 이전과 다른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멤버들이 중국 및 케냐 형제자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해야했고, 동참하는 팀원 중에 세례를 받은 지 한달이 안 되는 중국형제가 2명(V형제, D형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선교 출발 2주 전부터 팀원들끼리 시간을 할애하여 기독교인 회관 및 920동에서 시간이 할애해 모여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말씀 사역, 십자가의 대속, 승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의 시간들을 가졌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기 보다는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셨고, 무엇보다 중국형제들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 주셨다. 이번 단기 선교를 함께 떠난 D 형제는 작년 9월에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처음 교회문을 두드렸다. 지난 7월12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단기선교 가기 약 한달 전에 세례를 받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선교 기간동안 줄곧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우리에게는 좋은 동역자로 주 안에서 사랑스런 형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국에 혼자 돌아가서 교회를 찾아야 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하고, 아직까지 가정교회를 통해 음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문화권에서 겪을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D 형제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 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 했던 지체들이 내년에 어디에 있던지 다시 한번 태국에 모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그 중 복음을 끝까지 제시한 사람이 116명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49명이었고, 67명을 결정을 보류했거나 더 알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태국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부르실 것을 기도한다.

## Cambodia 캄보디아

일정 : 7월2일~7월13일/ 참여인원: 15명

주된 사역 : 프놈펜 대학사역, 갈뎃 교회와의 협력 사역

200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초기의 난관(?)도 하나님 은혜로 잘 헤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우리의 참된 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캄보디아 영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주신 하나님께, 오직 그분 한분께만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Kazakhstan 카자흐스탄

일정 : 7월9일-21일/ 참여인원:12명

주된 사역 : 실크로드 비전 센터에서 2010년까지 실크로드 지역에 5,000개의 교회 개척사역 가운데 서울대학교회 단기선교팀은 실크로드(중앙아시아)지역에 12개의 대학교회 개척하는데 그 첫 번째 대학교회를 까작의 키뎃 대학에 세움

일자/장소 : 2005. 7. 9.~ 7.21./ Kazakhstan, Almaty city

1. Kazakhstan University에 대학교회(ISA)를 세우는 사역
  - 1)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에서 세미나 초청사역
  - 2) 키뎃 대학에서 세미나 초청 사역
  - 3) 카페 마초에서 세미나 사역/ 첫째날: 38명, 둘째날:18명, 셋째날: 34명의 현지인 학생들이 모임
  - 4) 현지 사역자들(앗시아, 나미)를 세우는 사역
  - 5) 28명의 지체들이 ISA 모임에 연결
  - 6) 이번 겨울의 단기선교지역 키르키즈스탄 대학 방문
2. 백 투 예루살렘의 비전과 개인의 영성 회복
  - 1) 실크로드 지역의14개국의 6,000명이 모인 청년 페스티벌 참석
  - 2)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 ■ 단대 기독교인 모임 소식들 ■

### # 농기연

안녕하세요.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농기연)”입니다. 저희 농기연은 농생대대의 모든 기독교인의 모임이며, 각 과의 기독교 모임 대표와의 상호연락망으로 연합함으로 각 과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체로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많은 과 기독교 모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로 농생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또한 저희 농기연에서는 “농기연 연합 예배”를 통하여 연합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번 정도의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연이라는 연합체가 농생대라는 단대에 하

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기를, 또한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http://snuacu.cyworld.com>

연락처 : 대표 신학동 (식품공학 04, 011-9995-7371, shd-akong@hanmail.net)

### # 미크모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크리스천 모임 미크모입니다 ^^

저희가 매년 가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프로클레임 전시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생이 한자리에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제사인 프로클레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시어서 하나님을 드러냄을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작품들이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들의 하나님의 사랑받기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표현한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저 우리안에 있는 것들로 그분을 표현한 자리입니다. 작업하면서 우리가 느낀것을, 또 새롭게 느끼신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마무리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장소는 문화관 전시실 입니다.

오픈예배는 9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전시기간은 12일 부터 16일까지입니다.

13일 부터는 아침 9시에 오픈, 오후 6시까지 엽니다.

## | 존경하는 서울대 기독교선배님들께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이하 서기연)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윤소연 (건축학과01학번)입니다.

저희에 앞서서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영적인 토양을 일구어 두고 가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영적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2005년 1학기에는 서울대 선교단체와 과/단대 기독교인 모임, 교수님, 지역교회 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여 기독교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예배, 예수대행진, 대동제 섬김이, 종강예배 등이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05년 2학기에는 특별히 서울대 안의 모든 기독교동체들이 연합하여 전도 집회 'Fall in Love in Fall'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스가랴8:20-23)

이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에 의하면 대학생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전에는 20%에 육박하던 데서 지금은 4%대로 현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민족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열방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특히 이 복음축제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서울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일신의 안락과 성공을 위해 서울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자, 복함과 열방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SVM이 미친 영향력으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SVM을 통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훗날 수많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자신의 인생이 서울대 전도집회를 통해 새생명을 얻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함께 이러한 비전을 꿈꾸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간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전도에 힘쓰던 사람들도 많았고, 각 선교단체 별로도 각자 전도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도 집회는 그 모든 이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안의 모든 선교단체, 단대 기독교학생들 뿐 아니라, 대학원생, 교수님들, 교직원, 그리고 선배님들, 이렇게 모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준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배님들께 소식전합니다.

선배님들께서도 마음모아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복음축제에 더 많은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은 선배님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관악에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불꽃같이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8월 26일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대표) 윤소연 드림

# 2005 전도집회

## 9월 27(화) 6시반

# 2005 전도집회

###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팀 서울대 오다 -



이번 서울대 연합 전도집회 'Fall in Love in Fall'에는 문화공연으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가 선보입니다. 2004년 제 10회 한국 뮤지컬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마리아 마리아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에 힘입어 최우수작품상 외에 여우주연상, 극본상, 음악상 등 4개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예수를 유혹하는 대가로 밀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로마행을 꿈꾸는 창녀 마리아의 삶이 그려

### 예산후원

연락처 : 윤소연('05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대표)

이메일 : belovedysy@hanmail.net

휴대전화 : 011-9228-6784

후원계좌 : 농협 079-12-767872 윤소연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의 모든 재정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도집회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전반기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사역보고

2005년 전반기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은 복음 안에서 서울대 내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을 추구해왔습니다. 전반기 사역들은 크게 연합, 예배, 복음전도, 학내 섬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역은 위의 네가지 중 어느 한가지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강조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 연합

##### 제9회 서울대 기독교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17일~19일, 김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9회 서울대 기독교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005년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기독교인 신입생이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예배'로 시작함과 동시에 기독교인 선배와 교수님, 간사님들을 미리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비전있는 대학생활, 풍성한 대학생활을 갖게 해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박3일간의 기간동안 예배, 선택특강, 교수님과의 만남, 선배들과의 교제,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 재학생, 교수님, 간사님 등 200여명의 서울대인이 참여했습니다.

#### 대의원회의

서울대 내에 있는 30여개 선교단체, 단대 기독교인 모임 대표로 이루어진 대의원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행사에 따라 임시적으로 모여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사역을 논의합니다. 2005년 1학기 사역 역시 대의원회의를 통해 사역의 방향과 합의를 도출했고, 각 단체와 단대내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이단세미나(4월 11일)를 비롯한 강의와 정보공유, 차기 사역을 위한 피드백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Fall in Love

## 문화관 대강당에서

# Fall in Love

집니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마리아는 예수와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고, 그녀를 방탕한 길로 몰아 넣던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한국적인 감성·스토리를 보편성 있는 문법으로 감동스럽게 표현해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기연 아침 기도회 : 월요일 아침 8시  
 중보팀 모임 : 수요일 오후 4시 학생회관 302호  
 전도집회 중보 기도회 : 월요일 12시 학생회관

★ cyworld.com/falllove2005  
 fall in love in fall 의 미니 홈페이지입니다. 다들 일촌했어요~

### 홍보비

포스터, 현수막, 초정장, 티켓 - 957,900

### 행사진행

테코, 부스설치, 주차비, 수위아저씨수고비, 가이드북, 경품, 음식, 기타 - 2,721,400

마리아마리아 - 10,000,000 (비용 협상 중)

지출 합계 - 13,679,300원

### 예배

#### 개강 종강 예배

매 학기초와 말에 드려지는 개강/종강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임과 동시에 서울대 내 기독교인들이 한곳에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문화관 강당에서 3월 7일과 5월 30일에 드린 개강/종강예배는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님과 강요한 선교사님께서 각각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학기 개강예배는 9월 12일에 드립니다.

### 복음전도

#### 2005 예수대행진

4월 21일, 서울대 행정관 앞을 비롯한 전역

예수 대행진 행사는 매 학기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를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드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행정관 앞 넓은 잔디밭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 각 단대별로 흩어져 땅을 밟으며 행진합니다. 행진을 통해서 캠퍼스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집회에 모인 청년들의 삶과 캠퍼스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학내섬김

#### 2005 대동제

5월 16일~5월 18일

서울대 기독교 연합은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캠퍼스에 도전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총학생회와 연계함으로, 때로는 선교를 위한 모금운동으로 대동제에 참여해온 서울대 기독교 연합은 2005년 1학기 사역으로, 축제 진행 섬김이와 행사 후 청소 사역을 섬겼습니다.

## 간중문

# 카자흐스탄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한 혁 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꼽아보라면, 그 중에 손가락 세 개는 세 번의 카자흐스탄 선교 여행에 사용될 것 같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영으로 육으로 연약하던 나를 처음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시고 그 곳에서 '소망'이란 것을 덧입혀 주셨던 2003년의 첫 여행, 그 소망으로 강건하여져서 기적처럼 새롭게 된 영과 육으로 '섬김'이라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2004년의 두 번째 여행,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감히 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회복'을 명하신 올 해의 선교여행이 그것이다. 개인적인 사정과 좀더 심지가 굳지 못한 잘못으로 일주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넘치도록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



어느덧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활한 대륙과 풍부한 자원을 통하여 나름대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이며, 인종 구성의 다양함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당히 보기 드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곳에 중앙아시아의 메카로 불리우는 무슬림의 성지가 있고 수많은 무슬림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그곳으로 파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전쟁이 그 땅을 가득 메운 이 시점에 그들을 위한 중보와 도움이 더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올해에는 3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느덧 복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렐게르' 지역을 방문하여 가정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작년에 방문하여 수많은 영적전쟁을 치뤘던 복음을 심은 '발력쉬'라는 곳에 다시 방문하여 그 줄기를 더 튼튼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발력쉬에서는 선교팀이 준비한 마술, 워십댄스, 스킵, 마임 등의 다양한 순서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돌아움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깊이 체험한 우리들은 그들을 한 사람씩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충만한 영으로 우리 모두는 충만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금까지의 선교여행과 가장 크게 다르며 좋았던 것은, 이번에는 엠마누엘 교회의 청년지체들과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제목을 나누던 그 시간 가운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틈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 한 쪽에서 다른 쪽을 섬기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깨달았으며,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밖에 없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각 지체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새롭게 됨'을 구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움'을 향한 지혜를 부어주셨으며,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지체들도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될 학기에 이 곳 경영대를 크게 부흥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비단 다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어서는 안되겠지만, 차가워진 가슴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커진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꼭 한번은 참여해보기를 적극 권하고 싶다.



# 기독교와 공산당의 나라 동독 1949-1990(1)

## 들어가는 말

### I. 신학적 전통에서 본 동독의 기독교

### II. 동독의 기독교정책의 기초

### III. 기독교정책의 변화와 국제적인 환경

## 맺는 말

## 들어가는 말

유물론적인 변증법 이외의 어떤 다른 사상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공산사회 속에서 45년 동안이나 소멸되지 않고 그 존재를 유지해 왔던 공산권 속의 기독교는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1989년 동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단행되었을 때 신앙고백이 분명했던 기독교인인 로타 드 메지에르(Lotter de Mezier)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이 다수를 얻어 통일을 이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고, 또 그 후의 통일과정에서 새 독일을 구성하는 구 동독 지역의 5개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삭센주의 비덴코프(Biedenkopf)나 튀링겐의 포겔(Vogel) 등 서독의 제일급 정치가들로서 동독지역에 와서 주지사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독 출신으로서 당선된 사람들은 부란텐부르크의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를 위시하여 모두가 동독의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되었다. 역사를 주도할 만한 내적인 힘을 교회는 견지하고 있었고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교리 및 이데올로기 상 갈등,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에서 나타난 기독교 박해의 역사적 실천이라는 시각들에서 본다면 매우 이해하기 힘든 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의 의문은 공산주의 동독 속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된다.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교회에 대한 기본적 구상은 무엇인가? SED는 교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는가? 동독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동독의 교회정책은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러한 변화가 무엇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하여 살피려 하는데, 사회주의 정당인 SED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 동독정부) 정권이 1949년 수립된 후 1989년 SED가 권력을 잃고 기민당이 주도하는 드 메지에르 정권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50년간의 기독교와 동독 공산정권의 만남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동서독에

서 출간된 자료들 문헌에 나타난 동독 교회의 지도자들의 회술들을 문헌을 따라 추적하였고 필자가 1993년 동독을 방문하여 보고 만났던 교회 인사들의 면담도 기억하여 참고하였다.

### I. 신학적 전통에서 본 동독의 기독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된 후 공산권에 들어간 동독은 주민을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였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비텐베르크가 동독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속에는 마르틴 루터의 직업의 윤리 등 많은 종교개혁적 편린이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적 유산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었다. 동독 내의 기독교의 분포를 보면 종교개혁의 나라답게 독일인들이 복음적인 교회(Evangelische Kirche)로 부르는 개신교 인구가 1950년을 기준으로 전 인구의 80%에 이르고, 카톨릭 교회가 10%, 그리고 그 신도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여러 자유교회들이 있었다. 따라서 공산당의 나라 동독의 교회정책은 개신교에 대한 정책일 수 밖에 없었다.

카톨릭 교회는 동독 내에서 디아스포



라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특히 조직상 바티칸의 관할 하에 있게 되는 국제적 성격 때문에 동독의 정부와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는 이 양자 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동독 정부당국과 바티칸과의 관계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독 내의 카톨릭교회의 교구 관할도 동독지역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혹은 동독지역과 폴란드지역이 연결되어 교구가 구성되어있었다. 드레스덴/마이센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은 서독이나 폴란드의 교구와 그 관할 연결되어 있었고, 베를린교구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지역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동독의 부란텐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암 오더, 튀겐, 유터보그지역도 포함하였다. 동독의 슈베린, 막테부르크와 에어푸르

트/마이닝겐등은 서독의 디외제센에 함께 속하여 있었다. 또한 오데르 나이세 국경지역은 폴란드교구에 속하고 있었다. 자유교회라고 부르는 군소 교파에 속하는 교회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감리교 교리를 따르는 것들(신도수 약 28000), 침례파에 속하는 교회연합, 루터파의 교리에 충실한다는 몇 교회들, 갈베파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연합, 형제단 교회, 메노니트 교단, 퀘이커 그리고 구 카톨릭교회연합이라는 교파 등 모두 합해서 약 10만명의 신도수에 이르렀지만, 그 활동이 주로 예배와 교회 내의 교육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들에 관한 동독 당국의 정책 역시 큰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동독의 교회정책의 가장 큰 관심은

## “유물론적인 변증법 이외의 어떤

## 다른 사상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공산사회 속에서

## 45년 동안이나 소멸되지 않고 그 존재를 유지해 왔던

## 공산권 속의 기독교는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개신교회에 있었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대로 전 인구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리가 교회 내에 머무는 예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적인 자유교회들에 대한 동독 당국의 정책은 동독 당국이 개신교회에 대하여 설정하는 선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 논제를 위하여 개신교와 동독 당국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독일의 기독교는 히틀러의 제3제국을 지나오는 동안 히틀러를 지지하는 국수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이른바 독일적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과 이에 반대하고 복음적 전통에 충실했던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로 나뉘었다. 동독의 개신교는 히틀러에 저항하였던 이 고백교회적 유산으로부터 출현하였다. 동독의 개신교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쿠르트 샤프(Kurt Scharf), 귄터 야콥(Günther Jacob), 요한네스 예니케(Johannes Jänicke), 지그프리트 모트(Siegfried Noth), 잉게 베커(Inge Becker), 알부레히트 쇠헤르(Albrecht Schönherr) 등. 따라서 이들은 고백교회의 신앙고백이었던 1934년의 바르멘 신학

선언을 그들의 기본적인 고백으로 생각하였다. 바르멘 선언의 핵심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력 위에 있고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위임의 범위는 생활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회가 단순한 예배의식에 머무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4년 5월 29일부터 31까지 바르멘에 루터파 개혁파 연합파 자유교회 및 평신도회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였다. 이 모임은 독일의 전 28개 지역교구(Landeskirche) 가운데 19개 지역교구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의 획일화, 중앙집중화, 기독교 교리의 왜곡, 특히 이른바 아리아종족 조항이라는 반성경적인 인종적 사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르멘 신학선언을 채택하였다. 다소 다른 교리적 차이 때문에 종교개혁 이래로 하나의 고백 밑에 연합한 일이 없었던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이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압력 앞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신앙고백 밑에 모였던 것이다. 6개 항목으로 구성

된 이 선언은 각 항마다 그 항의 내용이 근거하는 성경구절을 제시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다시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매 항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을 거부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 한 마디로 실천적 이고 전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에서 왕이심을, 예수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경 이외의 어떤 철학적 가르침이나 정치적 가르침도 교회의 질서를 규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파시즘과 히틀러에 저항하였다는 점에서는 공산당과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3제국의 시대에는 독일공산당의 지도자 울브리히트(Ulbricht)등에게서 파시즘에 대한 공동의 전선을 형성할 것을 여러 번 제의받기도 했지만 교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공산주의 동독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고백교회의 전통을 이은 개신교는 히틀러에 저항했던 것처럼 공산당의 동독에 대하여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동독당국이 그들 나름대로 공산주의에 순응하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때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백교회의 전통을 강조하고 바르멘 신학선언을 그들의 길로 강조하였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신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하여 재건되는 동독의 기독교가 공산정권에 굴종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II. 동독의 기독교정책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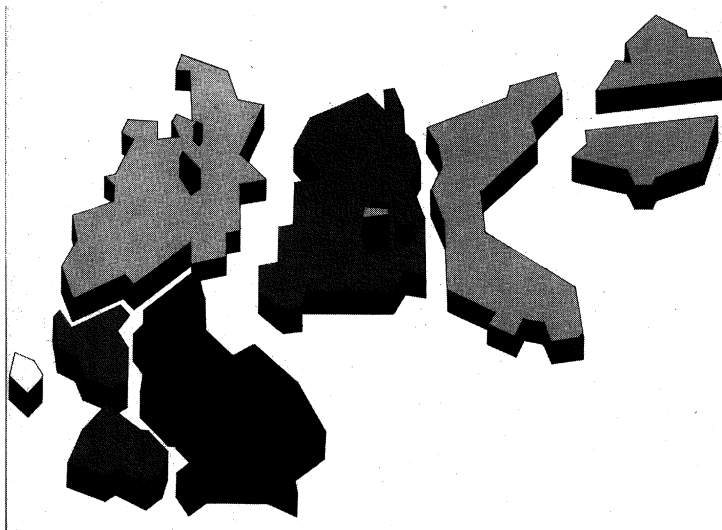
유물론적 변증법을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고있는 동독의 SED의 수뇌부들에게 기독교는 소멸되어야 할 상부구조요 아편적 존재였다. 그러나 전 인구의 90%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는 제거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을 넘어서서 가장 큰 위협일 수 밖에 없으며 동독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취약점인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기도 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유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기독교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는 보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적이자 청산해야 할 동독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여겨 탄압을 늦추지 않는 이중적 교회정책을 구사하였다. 1949년의 동독의 첫 헌법은 바이마르시대의 헌법과 거의 같은 종교자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헌법에 나타난 조항들 몇을 잠깐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민은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 공동체 결성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공동체는 거기에 소속한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세금 규정에 따라서 교회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교회는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할 권리를 갖는다” “병원 감옥 등에서 예배와 상담이 필요할 때 이러한 신앙적 활동이 신앙단체에 허용된다”

헌법조항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아서는 공산당 동독 정부와 교회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엿볼 수가 없다. 그러나 동독의 교회정책은 헌법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들을 통하여 수행되어졌다.

물론 동독 정부는 기독교를 하나의 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던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보다는 동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종교의 자유를 누렸다. 동독에서는 예배가 허용되었고 교회 내의 기독교 교리 교육이 허용되었다. 개신교의 사회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Diakonie) 사업과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섬김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카리타스(Karitas) 사업도 허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3월 혁명 후 1848년 9월 비텐베르크에서의 평신도회의에서(Kirchentag) 결성된 인너러 미시온(Innere Mission)에서 비롯되어 계속되었던 이 디아코니아 사업은 주로 양로원이나 병원, 고아원 등에서 섬기는 것들인데 이는 계획경제의 나라의 국가적 계획속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물론 자구(自救)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섬김이고 섬김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자들이 아니기에 이일이 교회의 영역으로 허용되었음은 물론이다. 매 해 여름마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리적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 예컨대 평화,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전국적 규모의 평신도회의가 계속되었다. 동독의 오

래된 6개의 대학에서는 신학대학이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어 목사후보생을 배출하였다. 카톨릭 교회에는 에어푸르트에 신부학교가 있었고 1982년의 보고에 따르면 약 100명의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라가 공산주의적 계획경제로 개편이 되고 생산수단들이 국유화되는 와중에서도 오래 내려온 교회가 소유했던 토지와 숲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화에서 제외시켰다. 교회언론도 개신교와 카톨릭 및 자유교회 모두에게 허용되었다. ‘개신교소식(Evangelischen Nachrichtendienst)’ 등 5개의 개신교 주간신문들 그리고 카톨릭



의 2개의 주간신문, 여러개의 자유교회의 월간잡지들이 나왔다. 그중 개신교의 월간 잡지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문으로는 “Die Zeichen der Zeit (번역하면 시대의 징후들이란 뜻)” 그리고 CDU-ost에 가까웠던 것으로 “Standpunkt (번역하면 입장이라는 뜻)” 이와 유사한 카톨릭의 잡지로는 “Begegnung(만남이라는 뜻)”이 있었고, 출판사로는 개신교측에는 베를린 개신교 출판국(Die Evangelische Verlagsanstalt Berlin(ost))이 카톨릭측에는

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헌법에 보장되었던 권리와 활동의 가능성들이 제한, 위축되었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밀려났고 교회 밖의 공간이나 시설들에서는 교회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감옥이나 병원 및 국영 양로원에서의 상담이나 예배가 금지되거나 행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었다. 교회세는 국가가 협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노름빚과 같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었다. 물론 동독의 경제구조가 계획경제이니 교회를 위한 예산이 연간 1천2백만 마르크 정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액수는 서독의 마

르크로하면 1백2십만 마르크 내지는 2백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직자들의 봉급은 사회의 가장 밑의 봉급수준이었다. 또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하는 액수가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는데 이를 동독돈으로 환전함

에 서독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시세를 따라 1:5 내지 1:10에 이르렀던 환율을 동독당국은 이를 1:1의 환율로 환전케 함으로 실제로는 막대한 액수를 거두어 가서 이를 부족한 외환을 보충하는 데 썼다. 교회건물 보수와 디아코니아 사업을 위하여 1년에 두 번의 가두모금을 허용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이 비용들도 사실은 서독교회의 지원금에 의존하였다. 교회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것이 절정에 달한 것이 1952년, 53

“전 인구의 90%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는 제거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을 넘어서서 가장 큰 위협일 수 밖에 없으며 동독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취약점인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기도 했다.”

라이프지히 성베노 출판사(ST.Benno Verlag Leipzig)가 있었다.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주일아침이면 예배방송을 송출하였고 1978년 봄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15분씩 개신교소식을 방송하였으며 1983년 루터의 해 기념행사에서는 교회의 행사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DDR에서 정권을 장악한 SED는 몇 년 동안은 아주 무신론적이고 반교회적인 프로파간다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였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응 역시 SED의 나라에 대하여 강도 높은 거부와 저항으로 맞섰고 이를 울부짖거나 그로테볼(Grotewohl)등 공산당 수뇌들과 그의 동무들은 교회야말로 서방제국주의 적들의 첩자요 제 5례

년이었는데 심지어 개신교의 청소년들을 계급의 적으로 몰아 무더기로 학교에서 내몰았던 일도 있었다. 1952년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나가고 학교의 교실들이 텅 빌정도였다.

SED의 나라 동독의 반기독교적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젊은이들에게 탈(脫)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강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신론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거의 강제적인 사회교육과정인 바로 청년의식, 즉 유겐트바이흐(Jugendweih)이었다. 원래 청년의식이란 유럽에서 1859년부터 종교적인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Freireligiösen Gemeinden)의 사람들, 비종교적이거나 무종교적이거나 반종교적인 사람들, 반교회적 반기독교적인 사람

들이 모여 기독교세례의 입교문답에 반대되는 의식으로 행해지던 것이었는데 이를 동독정부가 받아들여 사회주의적 변용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규모의 의식으로 행하게 하였다. 이 청년의식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이를 책임지고 실행하였다. 기독교의 입교교육이 시작되는 14세 어린이들에게 거의 같은 기간의 준비교육을 시켰고 기독교의 신앙문답과 같은 고백과정과 기독교의 대부 대모제도도 같은 제도도 도입하여 이 의식을 진행해 갔는데, 이 교육과정에는 조국, 세계평화, 사회주의, 무신론, 유물사관 등 기독교의 신앙고백과는 물론 일치할 수 없는 교과들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었다. 이는 1954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교회는 이 교육내용이 무신론적이고 실시시기가 교회의 세례교육과 일치하며 이름만 자발적이지 실제로는 강제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기독교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교회는 공산주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식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례 및 입교의 자격을 주지 않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청년의식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적령기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청년의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결정들을 속속 내리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신념이나 신앙에 근거한 결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는 기회주의적인 결정들이었다. 청년의식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학과 장래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세례지망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교회는 그 존속이 위협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교회가 시민들의 용기에 의존해서 정치권력과의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셈이다. 1958년 교회는 청년의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세례의 입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른바 SED의 청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자유독일청년단(FDJ)이라는 사회주의적 청소년 대중조직도 교회 박해에 동원되었다. 자유독일청년단은 국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청년단도 아니고 확정적인 회원제도도 갖고 있지 않은 개신교회의 청년회들을 원천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개신교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구속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이며 ‘반파시즘적 민주적’ 질서 및 사회주의의 건설과 서구와 서독의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와의 투쟁을 목표로하는 이 조직의 운용을 통하여 젊은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일터의 결정등 장래의 가능성이 결정되었다. 동독의 반기독교적 교회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하여서였다.

유은상 (본지 편집인)  
(다음호에는 기독교정책의 변화와 국제적인 환경을 연재합니다.)

# 유대인, 세계속의 나그네들 4

1.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 성경 속의 유대인: 세계 속의 나그네들
  3.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와 유대인들
  4. 중세: 기독교권 속의 유대인들 이슬람권의 유대인들
  5. Sephardim(오바다 20절)과 Aschenasim(창 10장3절)
  6. 해방의 선언: 프랑스 대혁명, 프러시아의 대개혁, 러시아 혁명
  7. 반셈주의와 Hitler의 유대인 대학살
  8. Zionismus와 이스라엘의 독립
- 이야기를 마치면서

## 8. Zionismus와 이스라엘의 독립

세계 속에서 나그네로 유랑하면서 반유대주의적인 불관용을 고통하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다윗왕조를 세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터위에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희망하는 운동이 19세기 말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압제와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땅 러시아에서였습니다. 1885년 벌써 러시아의 유대인들 가운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Diaspora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호응을 받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비엔나의 언론인출신인 Dr. Theodor Herzl이 1895년 이러한 목적으로 시온주의자들 조직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면서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드레후스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열리고 반유대주의적인 그릇된 앞에 작가 에밀 졸라와 훗날 프랑스의 수상이된 포앙카레등에 의해서 정의를 위한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던 1897년 스위스의 Basel에서 제1차 시온주의자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시온주의에서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의 일원이거나 어떤 인종적인 일원을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 유대인이라든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이 시온주의자들은 바벨의 강령에 따라 세계를 향하여 유대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고향을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할 수있도록 세계의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직적이고 끈질긴 유대인들의 요구앞에 영국은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의 땅이었던 Uganda를 시온주의자들의 요구를 위하여 제의했습니다만, 이들은 역사적인 이유와 민족적감정의 이유를 들어 끈질기에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요구하였습니다. 영국의 시온주의자 모임의 의장이 Rothschild 경의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A.J.Balfour의 1917년 11월 2일자 회답 편지에서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 지역에 있는 비유대계 공동체들의 시민적 권리와 종교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에 있는 유대인들의 권리와 정치적 지위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발포어 선언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시온주의자들의 운동의 꿈을 이루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언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의 힘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영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디만 여하튼 시온주의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1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의 신탁통치권을 맡은 영국과 이전의 이 지역의 통치국이었던 터키와의 조약을 통해서 그

**Ghetto와 Talmud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지켜준, 세계의 유대인들을 하나되게 하여준 정신적 힘이요 생활 방식이지만 동시에 남들의 미움을 사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리고 1차 세계대전시의 연합국가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고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1차대전후 시온주의 조직은 회원 100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영국의 신탁통치 기간 동안 3천5백만 파운드의 자금이 투자되고 2천만파운드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랍인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 부터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1933-1945의 기간동안 다만 30만의 유대인들만 이곳으로 이주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Leeds 대학의 화학교수였던 Dr. Ch. Weizmann이 1920-1946 동안

이 조직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는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정식 출범한 후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역사상 유례 없었던 인종주의적 박해가 시온주의의 실현을 촉진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드디어 1948 5.15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선언되었습니다. 아랍세계의 반대 그리고 시온주의를 서방제국주의의 도구로 그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는 공산권의 반대의 분위기를 뚫고 독립을 쟁취한 시온주의자들의 꿈의 실현인 이스라엘에 전 세계 유대인들의 약 30% 가량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 이야기를 마치면서

유대인, 세계 속의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지난날들이 너무 힘든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하여 달리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ax Dimont 같은 이는 러시아의 반유대주의적인 그리고 히틀러의 반셈주의에 의하여 강요되어지기 이전의 유대인의 모여 사는 삶 Ghetto 안의 삶이란 유대인들이 가진 간섭받지 않는 자기들의 법정 경찰 재판소 조세제도였고 또한 중세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유대인의 삶이란 실상은 귀족이나 사제들만은 못하였지만 일반 농노나 자작농이나 자유민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Ghetto와 Talmud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지켜준, 세계의 유대인들을 하나되게 하여준 정신적 힘이요 생활 방식이지만 동시에 남들의 미움을 사게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대인, 세계 속의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4천년을 더듬으면서 시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AD 740년경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흑해와 가스피어해 사이의 Chasaren 제국의 이야기 특히 유대인들의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의 유대인들에게 억압이 없는 모든 것이 보장된 땅 미국에서의 유대인 이야기도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자 합니다. 언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따뜻한 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라도 함께 나누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유은상(본지 편집인)

## ■ 단대 기독교인 모임 소식들 ■

### # 사회기연

8월 30일(화) 사회대 졸업식에 사회기연 15명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 97학번 김동구 형제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2005년 2학기는 1학과 동일하게 월요일점심모임과 금요일점심모임을 갖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수요기도모임을 갖는답니다. 또 9월 12일(월)에 있는 개강예배 때 사회기연이 특송을 맡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안고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점심모임: 매주 월요일 후생관 앞 11시 50분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16동 104호 8시 20분  
 금요일모임: 매주 금요일 두레문예관 B 101호 10시 30분  
 연락처: 대표 외교 00 함중규 011-9918-1032)

### # 약대 기독교인 모임 (새벽빛)

새벽빛은 약대 기독교인 모임입니다. 21동 2층 새벽빛 룸에서 매주 목요일 점심모임을 하고 매주 수요일 아침기도회,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합니다. 약대내의 작은 모임이고 바쁜 전공생활에 다들 많은 시간을 낼수는 없지만 약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캠퍼스에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모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새벽빛의 기도제목은 이번 학기부터 이끌어가는 대표학년(2학년)안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동역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연락처: 제약학과 03 김지연

### 서울대학교회 유학생 환송식 :

서울대학교회를 섬기던 11명의 지체들이 유학의 길에 올랐다. 7월 24일 주일 이들을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기환/ 연윤주 부부(오스트리아),  
 김동선/ 이영미 부부(미국 탈봇신학교),  
 정유경 형제(미국퍼듀대),  
 김태현 형제(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  
 이정준 형제(미국스탠퍼드 대학),  
 박진아 자매(미국 고든 코벨),  
 심지원 자매(미국 시카고 대학),  
 김혜성 자매(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  
 박에스터 자매(미국팔슨)